



즉시 배포용: 11/2/2015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## **CUOMO** 주지사, 알츠하이머 및 기타 치매 환자의 간호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**6750만 달러** 발표

Andrew M.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알츠하이머 및 기타 치매 환자 약 380,000명을 간호하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주 전역의 9개 기관에 6750만 달러가 교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본 보조금은 2015-16 집행 예산의 일부로 금년초에 발표된 Andrew M. Cuomo 지사의 알츠하이머 간호자 지원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.

“알츠하이머병은 해마다 수 천명의 뉴욕주민들이 걸리며 환자와 간호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줍니다”라고 **Cuomo** 지사는 **말했습니다.** “이 투자는 알츠하이머 및 기타 유사 질병 환자의 간호자들에게 광범위한 지원과 휴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”

주지사의 알츠하이머 간호자 지원 이니셔티브는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살피는 뉴욕주민들에게 지나치게 과해지는 정서적 및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. 뉴욕주에는 11억 시간의 무급 간호를 제공하는 이러한 비정식 간호자들이 총 100만명이 있습니다.

보조금 수령 기관들은 간호 상담, 교육 자원, 지지 그룹 및 휴식 서비스 같은 증거 기반 접근법을 통해 비정식 간호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5개년 과정에 걸쳐 750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. 과거 증거는 이러한 서비스가 간호자 스트레스 및 건강 위험을 줄이면서 알츠하이머 환자 삶의 질도 개선하는 데 긴요함을 보여줍니다.

9개의 보조금 수령 기관들:

- Alzheimer's Disease 와 Related Disorders Association, Hudson Valley/Rockland/Westchester, NY Chapter
- Research Foundation for SUNY Plattsburgh
- Catholic Charities of Buffalo
- Lifespan of Greater Rochester, Inc.
- Northeast Health Foundation, Inc.
- Parker Jewish Institute for Health Care and Rehabilitation

- Sunnyside Community Services, Inc.
-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
- Presbyterian Senior Services, Inc.

**뉴욕주 상원 노령위원회 의장 Sue Seri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** “간호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엄으로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 알츠하이머 및 치매로 삶이 영원히 바뀐 가족과 친구를 보살피는 분들은 엄청나게 독특한 도전에 직면합니다. 본인은 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하신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 수 많은 간호자들에게도 우리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.”

**뉴욕주 상원 노령위원회 부의장 Ruben Diaz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** “상원 노령위원회 부의장으로서 본인은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연구 진척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. 본인은 기억력 상실로 진단된 사람과 그들의 가족 및 간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주창해 왔습니다.”

**뉴욕주 하원 노령위원회 의장 Steven Cymbrowit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** “알츠하이머병 또는 기타 치매 형식을 가진 사랑하는 이들의 니즈를 보살피는 것은 종종 24시간, 주 7일의 일로서 간호자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없으면 가족들은 친척이 요구하는 수준의 간호를 도저히 지탱할 수 없습니다. 이 보조금은 이 급속 성장하는 모집단의 니즈를 충족하도록 간호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을 도울 것입니다.”

**뉴욕주 보건부 장관 Howard Zucker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** “간호자들은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간호 임무에 종종 엄청난 양의 시간, 에너지와 자원을 바칩니다. 종종 그들은 책임 때문에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. 이러한 보조금은 기관들이 장거리 간호자를 포함하여 우리 주의 간호자들을 지원하는 증거 기반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”

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로서 뉴욕주의 경우 증례 수가 2025년까지 380,000에서 460,00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뉴욕주의 알츠하이머 환자 절반 이상이 자택에서 살며, 그 중 75%가 간호하는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 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